

AIDS NEWS

11~12



본회는 10월 10~11일 에이즈 관리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에이즈관리와 교육 위한 워크숍 개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남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광주, 전남·전북의 에이즈 관리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에이즈 관리와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선식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광주전남회장의 개회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에이즈현황, 세계 동향, 검사전후 상담의 실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감염인과의 대화, 그룹토의로 진행되었다.

또 '한국의 성 문화와 에이즈' (윤기현 교수·전남대 심리학과)를 주제로 열린 외부강사 특강을 열어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대안학교 청소년에게 예방교육

본회는 10월 2일 충북 청원 양업 고등학교 학생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실'을 열었다.



에이즈의 개념과 전파 경로, 증상, 예방법 등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교육용 CD를 이용한 교육이 끝난 후에는 에이즈예방 표어 공모와 포스터 그리기를 실시하여 뛰어난 작품을 낸 학생 5명에게 상품을 전달하였다.

에이즈환자 편견때문에 더 고통

"에이즈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더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HIV) 감염인 차별 방지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영국의 비정부 단체 에이즈 연합(National AIDS Trust)의 키이스 와인스테인 사무국장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인스테인 사무국장은 16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에이즈와 HIV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인류 전체의 문제"라면서 "단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닌 영국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에이즈 연합에서 9년째 활동중인 와인스테인 사무국장은 세계에이즈의 날을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HIV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매일 9월 17일)

10명 선임

환자 18명의 에이즈 집단감염 사건을 조사한 국립보건원은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10명 중 10명만을 재임용하고 새로운 전문가 10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감염학, 약학, 혈액학 전문가와 소비자보호원, 한국혈우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첫 회의를 갖고 가톨릭대의대 강문원 교수(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하기 때문에 당시 매혈자와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DNA를 지금 분석해도 100%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며 "따라서 과거 조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원은 집단감염 직전 혈우병 치료제의 원료를 제공했던 동성에 에이즈 감염자 2명은 아직도 살아있어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월 17일)

〈반론보도문〉 9월 13일자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본보는 9월 13일자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관련 보도에서 울산대 조영걸 교수가 2001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 “에이즈 감염자 오모씨와 김모씨의 혈장이 국산B형 혈우병 치료제의 원료로 섞여 들어갔고, 문제의 오씨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하게 나와 혈우병 B형 환자들에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것은 국산B형 혈우병 치료제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업체에서는 문제의 오씨 혈장은 국산B형 혈우병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오씨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하다는 점은 국산B형 혈우병 치료제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0월 18일)

AIDS - 매독 등 전염병 감염 헌혈혈액 폐기처분 급증
올 상반기 중 헌혈된 혈액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에 감염된 혈액으로 밝혀져 폐기처분된 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1999~2002년 헌혈 혈액의 전염병 현황 및 사유별 폐기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헌혈자 127만 5202명 중 AIDS 양성반응자는 922명, 매독 감염자는 27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헌혈자 249만1487명 중 AIDS 양성반응자 945명, 매독감염자 369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폐기처분된 28만 2860명의 혈액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ATL수치가 높아 폐기처분된 혈액도 7만26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9월 10일)

여관 · 역에 콘돔자판기

보건복지부는 9일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중 숙박업소와 윤락업소, 역과 터미널 등에 1만 8천개의 콘돔자판기 동판매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숙박업소 등에 2천3백여개의 자판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올 상반기까지의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1천7백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9일)

에이즈 10대여성 대구 ‘티켓다방’ 종사

작년 9월부터 6월까지 전북 김제시 모다방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상당기간 일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김제시 보건소는 “에이즈 감염자인 K(18·여·대구 사)양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3일까지 20여일간 김제시내 A다방에 취업해 일했으나 국립보건원 검사 결과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여 주조지인 대구로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4년 전 기출한 K양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의 한 다방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A다방에 취업한 K양이 건강진단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여 국립보건원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역시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김제시 보건소에는 K양과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로부터 수십 여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당국은 에이즈에 감염된 K양이 대구의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할 당시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는지와 감염된 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다. K양은 현재 대구 모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매일신문 10월 2일)

군 에이즈 2001년 이후 10명

현역 병사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지난해부터 모두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4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조사 결과 군내 에이즈 환자가 지난해 8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 2명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영 후 에이즈에 감염된 병사의 경우 복부 중 현혈 과정에서만 대부분 확인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0월 4일)

에이즈 하루 한명꼴 감염

국내에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하루 한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감염자의 경우 여성과의 성 접촉보다 동성 연애를 통해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은 17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2백77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새로이 발견돼 총 감염자는 1천8백8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새 감염자 중 91%인 2백53명이 남성이다. 전체 감염자 중에서도 남자가 88%(1천6백67명)를 차지한다.

올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높은 것이어서 최근 확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앙일보 10월 17일)

에이즈로 인한 노동생산성 '연간 2400억원 손실'

한국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연간 2천4백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책임연구원과 윤강재 연구원은 18일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발표한 "AIDS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액 추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 등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고 기대수명까지 일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을 산출하는 총생산손실계산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생산성 손실액은 94년 4백55억원으로 추정된 이후 97년과 98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2001년에는 2천4백13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는 6월말 현재 1천2백83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까지 0.01%수준을 유지했으나 99년 이후 매년 증가, 지난해는 0.04%를 차지했다. (한국경제 10월 18일)

"총알" 탄 에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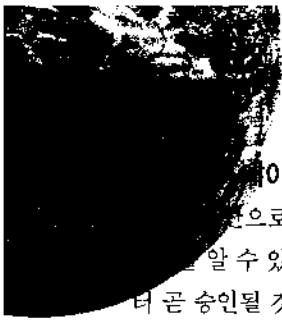
작년 100명 감염에 4개월로 급속확산 에이즈 감염자가 새로 100명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980년대에는 5년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 1년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4개월로 격감하는 등 에이즈의 확산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에이즈 감염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이즈 환자를 위해 전문 병상을 갖춘 곳은 서울대 병원 등 3곳으로 국립의료원조차 전문 병상이 없다.

국립보건원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늘자 1993년 '에이즈 스톱 7개년 계획'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에이즈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제 에이즈 감염자는 확인된 감염자의 5~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10월 1일)



에이즈검사법 FDA 승인 임박

미국으로 20분 내에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이 미국 식품의약청(FDA)로부터 곧 승인될 것이라고 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FDA내 의사결정 과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당국이 그동안 유보해온 '즉석' 에이즈검사법과 관련한 기술적 혹은 제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이즈 퇴치운동단체들은 비 FDA가 "매우 정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이미 전 세계 9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에 대한 평가를 질질 끌어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혈액을 이용한 에이즈 검사법은 여성들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임신유무 테스트나 소변을 이용한 당뇨검사만큼 편리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트 트로트 LA 에이즈의료보호재단 부이사장은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검사법의 잠재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했다.

FDA는 베들레헴 제약 '오라퀵(OraQuick)' 과 애보트 다이아그나스틱스사(社)가 종전 제품을 보완한 '디터마인(Determine)' 등 두 HIV검사제에 대한 승인 여부에 논쟁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2주 이내 당국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에이즈바이러스 항체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1회용 검사법인 '오라퀵'의 시판 예정가는 아직 미정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을 경우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작은 시약 두 줄이 빨강색 변한다. (연합뉴스 9월 29일)

'에이즈 외국인 근로자' 무방비

경기북부지역에 불법체류하거나 산업연수중인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파악·관리되지 않아 AIDS확산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출입국사무소 의정부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경기북부 지역의 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혈액검사 결과 AIDS 환자로 판명돼 강제출국된 외국인 근로자는 7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AIDS에 감염된채 불법체류하다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 5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사업장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 AIDS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 백병원에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카메룬 국적의 포난톤(28)씨가 국립보건원의 정밀검사결과 AIDS 환자로 판명된 이후 잠적,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제 앞서 지난 7월말에는 포천군 화현면의 가구공장에 근무하는 몽골인 엔크들(34)씨가 배탈, 설사증세를 보여 서울 이태원의 K 의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AIDS 양성반응을 보여 강제출국 되는 등 7월 한 달 동안 몽골인 2명이 AIDS에 감염돼 적발됐다.

이들 몽골인은 특수관광 유흥업소의 종업원등 국내인과 성 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화일보 9월 28일)

에이즈 백신 특허출원 세계 2위

에이즈 백신과 관련해 우리나라 제약회사나 개인 등이 출원한 특허건수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에이즈 백신 관련 내국인 특허는 1992년 1건이 첫 출원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말까지 8건 등 모두 30건이 출원돼 이중 7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국인 출원건수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총 165건의 관련 특허 중 18.2%이며 67건을 출원한 미국인에 이어 다출원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11건으로 공동 3위인 벨기에와 프랑스, 공동 5위인 영국과 독일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YTN 9월 29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9-10월)

정회원			
이우방 50,000	박삼원 200,000	함유식 30,000	
백태현 20,000	변동화 20,000	정연출 84,000	
강인형 10,000	최종명 10,000	정인보 100,000	
유금숙 20,000	신문환 20,000	홍윤기 10,000	
최연정 60,000	김매자 10,000	권순자 10,000	
윤성현 10,000	강우식 10,000	오원희 50,000	
선우경식 35,000	박진건 10,000	안은미 20,000	
최명호 100,000	소 계 889,000		

단체회원

수원 한일전산여고 20,000	경원중학교 20,000
길 남성클리닉 500,000	소 계 540,000

합 계 1,429,000